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3. 11. 27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11/20~11/24)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연준 위원들의 신중한 스탠스 강조에도 시장 내 긴축 종료 기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부양책 지지 소식에 따른 위안화 강세 영향 더해지며 환율은 1,290원대 초반으로 하락 출발. 이어 양호한 미국채 20년물 입찰 결과에 따른 국채금리 하락과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 등에 하락세 지속
- 중반 들어, 11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 관계자들이 제약적 정책 유지 필요성 강조한 점 확인되면서 상승 전환
- 후반,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 앞두고 방향성 제한되는 가운데 수급상 수출업체 달러 매도 물량 유입 영향 속 하락. 이어 주 후반, 최근 환율 급락에 따른 되돌림 압력과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매수세 지속 등에 상승 후 1,300원대 중반에서 마감

달러/원 전망

- 주요국 경제여건 개선 등에 따른 달러 최근의 달러 약세 분위기 지속 등이 원화 강세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판단
- 하지만 11월 FOMC 의사록에서 매파적 신호가 재차 감지된 만큼 여전히 연준이 제약적 긴축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란 측면은 달러 강세 지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여기에 금주 예정인 미국 PCE지표와 주 후반 예정된 파월 의장 발언 등으로 환율 변동성은 다소 높은 수준 유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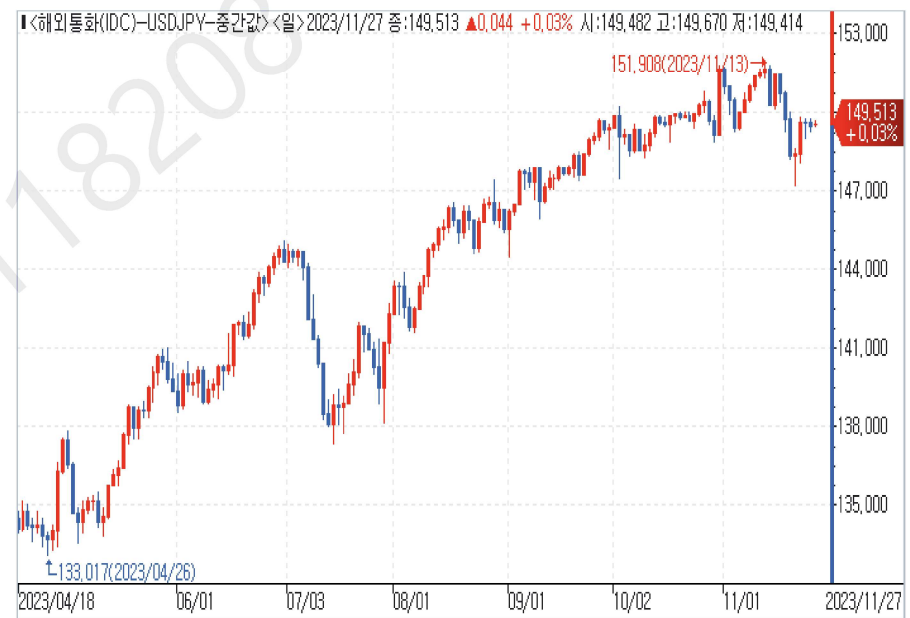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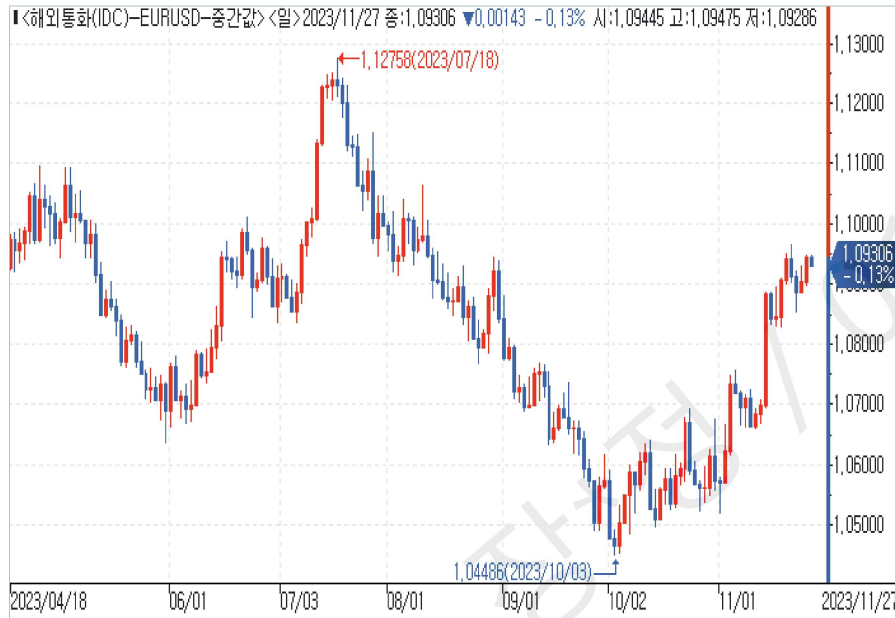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296.0	1,306.7	1,284.0	1,306.4	+10.4

예상거래범위

1,290원 ~ 1,310원



엔·유로화 동향 (11/20~11/24)



유로화 동향

- 주초, 연준의 금리인상 종료 기대감이 달러 약세 견인하는 가운데 ECB와의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영향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로화 강세 출발. 이어 ECB 총재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 기조를 결정할 것임을 강조했음에도 11월 FOMC 의사록 확인 후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제한되면서 달러 대비 약세
- 중반, 유로존 11월 소비심리가 연속 마이너스 기록하는 등 소비 회복 지연으로 경기 우려 부각되며 약세 지속
- 이어 주 후반, 독일 정부의 부채한도 유예 발표에 따른 독일 국채 수익률 상승과 요아힘 나겔 분데스뱅크 총재의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우려 표시 등을 반영하며 달러 대비 강세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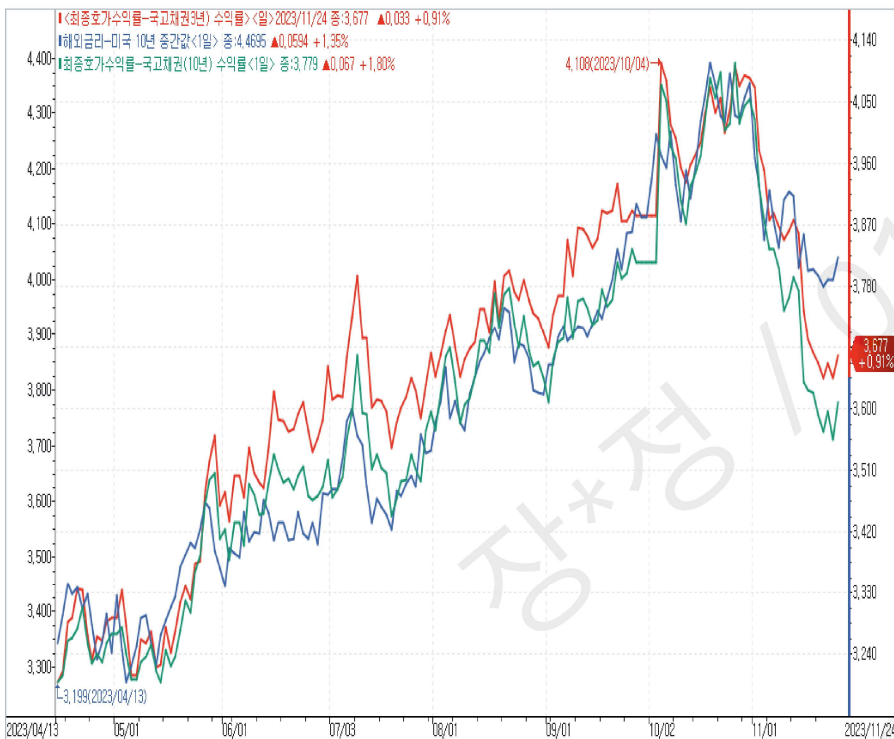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909	1.0965	1.0852	1.0945	+0.0036

엔화 동향

- 주초, 미국채 입찰 호조에 따른 국채 수익률 하락 반영한 미-일 금리차 축소, 연준의 통화정책 피벗 기대감으로 인한 달러 약세 영향 속 엔화 강세 출발. 이어, 11월 FOMC 의사록 내 연준의 제약적 스탠스 지속 의지 확인되자 BOJ의 완화적 스탠스 재차 부각되며 소폭 약세
- 중반, 미국 장단기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등에 달러 약세 제한되는 가운데 최근 엔화의 급격한 강세에 대한 되돌림 압력 나타나며 약세 지속
- 이어 주 후반, 일본 10월 근원CPI가 2.9%로 상승했음에도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한 데 따른 BOJ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전망에 강세 제한되며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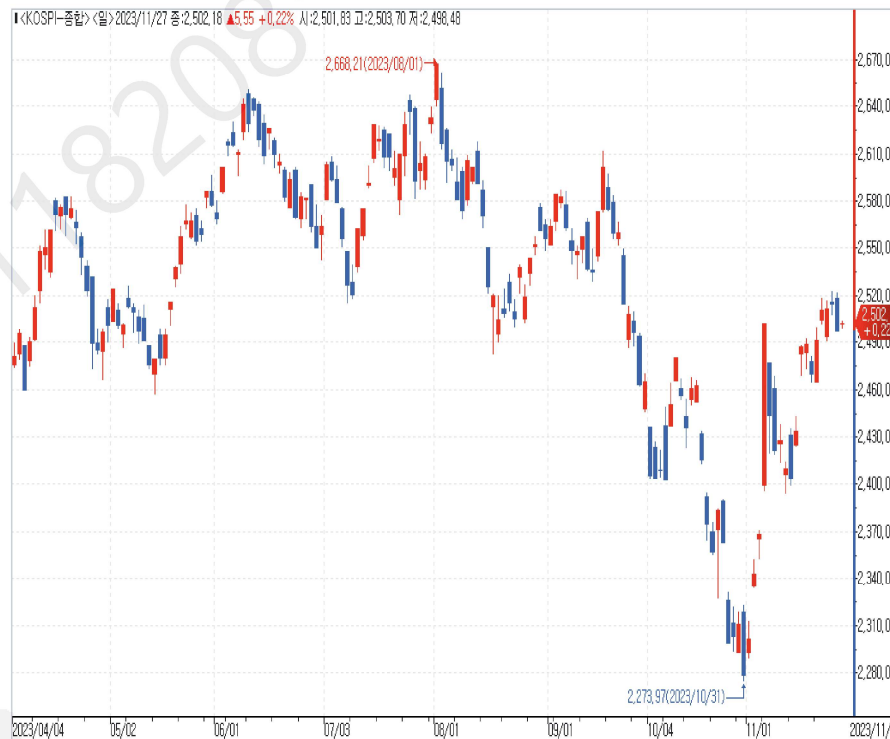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9.7	149.9	147.2	149.5	-0.2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1/20~11/24)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선물 매수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며 국고채 금리 하락 출발. 이어 미 10월 경기선행지수가 연속 하락한 영향 등에 의한 연준 긴축 완화 기대가 지지된 영향 등이 반영되며 소폭 하락 추세 지속
- 중반 들어, 11월 FOMC 의사록이 여전히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한 긴축적 시사를 반영한 영향 등으로 미 국채금리가 상승한 영향을 반영하며 상승 전환
- 후반 들어, 수급상 국고채 발행 축소 계획 등에 따른 기대 반영 속 외국인 투자자 국채선물 매수 강화 등으로 하락 재전환 후, 주 후반, 아시아장에서 미 국채 금리 상승 영향과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선물 순매도 전환에 따른 영향 등이 반영되며 상승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수급상 기관, 외국인 매수 강화 등으로 강보합 출발. 이어 미국 금융시장의 기술주 중심 상승 영향 등 주요 지수 상승 속에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 강화 등으로 상승 지속하며 2,510선 안착
- 중반, 추가 상승 모멘텀 부재 속에 다소 숨고르기 양상을 나타내며 강보합 흐름
- 후반 들어서도 특별한 방향성 이슈 부재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4거래일 연속 순매수 등으로 소폭 상승 흐름 이어간 후, 주 후반, 전일에 이어 시장 향방에 대한 특이 이슈 부재 속에 외국인 매도세 전환 등으로 하락 전환하며 코스피 2,500선을 내어주며 마감